

해방 3년의 시기에 있어서의 남북한 좌파 지도자들의 공산주의관*

金 學 俊**

I. 머리말

II. 남한 좌파세력의 공산주의 수용

좌파와 공산주의관

1. 여운형과 그의 주변세력

2.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3. 김두봉과 연안파

4. 김일성과 소련-갑산파

III. 맺음말

I. 머리말

해방 3년의 시기(1945년 8월 15일~1948년 8월 및 9월)에 남북한의 정세에는 많은 좌파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북한의 정세는 좌파 지도자들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었으며, 남한의 정세는 최종적으로는 우파 지도자들의 정권 장악으로 귀결되었으나 좌파 지도자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때, 해방 3년의 한반도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세력은 좌파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좌파 세력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여러 부분들을 함께 수용한다. 달리 말해, 좌파 세력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갈래의 서로 차이 있는 이데올로기 세력들이 배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체로 마르크시스트-레니니스트 또는 공산주의자와 동일시되거나 적어도 용공주의자로 여겨졌다.

* 이 研究는 1985年度 文敎部 共產黨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 서울大學校 政治學科 敎授.

물론 그들의 상당한 부분은 마르크시스트—레니니스트 또는 공산주의자로서,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처했으며 그들의 언행이 그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들이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계기와 과정이 달랐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에 대한 그들의 관념 및 이해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시스트—레니니스트로 자처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적인 좌파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가졌던 관념에도 물론 차이가 있었다.

중합권대, 해방 3년의 시기에 남북한의 좌파 지도자들이 가졌던 공산주의에 대한 관념과 이해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 글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하나의 작은 시도이다. 그 시도가 비록 성공적이지는 못하지만, 이 글을 통해 필자는 해방 3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좌파 지도자들이 지녔던 공산주의관을 설명하고 그 설명을 통해 한국(남북한)에 공산주의가 수용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남한 좌파세력의 공산주의 수용과정과 공산주의관

1. 여운형과 그의 주변 세력

남한의 해방 정국에서 기선을 제압한 세력은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건국 준비위원회였다. 이 조직은 곧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변질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이 미 군정에 의해 불법화됨에 따라 여운형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조선인민당을 창당하며 뒷날 다시 근로인민당을 창당한다.¹⁾ 그러면 여운형과 그리고 여운형이 깊이 개입되었던 이 조직들의 정치적 정향은 어떠했는가? 아래에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시도해 본다.

1)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呂運弘, 『夢陽 呂運亨』(서울: 청하각, 1967)을 참조함이 좋겠다.

여운형이 마르크시스트—레니니스트 조직과 공식적으로 관련을 맺은 것은 1920년 봄 상해에서 李東輝 등이 발족시킨 「공산주의자 그룹」에의 가담이었다. 여운형이 이 그룹에 가담하기까지 보여 주었던 사상활동과 정치 활동은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²⁾ 그는 코민테른 遠東局 서기 보이틴스키(Voitinsky)로부터 국제공산당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원조할 것이므로 조선인의 공산당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그것에 따랐을 뿐이다. 여운형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 그룹」에 가입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그러했다. 여운형에 따르면, “「공산주의자 그룹」 시대는 공산주의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았고 한 마디로 유치한 시기여서 선언서의 발표도 없었으며, 별로 강령과 규약 등도 확정함이 없이 다만 한인의 공산당을 조직하여 국제당의 승인을 얻어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것뿐이었다.”³⁾

이동휘의 「공산주의자 그룹」은 1921년 1월 10일 고려공산당으로 개칭했다. 이어 1921년 5월 초(날짜는 확실하지 않음) 상해에서 고려공산당 대표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선언이 채택됐다. 이 선언은 명백히 마르크시스트—레니니스트이었다. 유물사관에 입각한 계급혁명론을 바탕으로 간 이 선언은 조선의 ‘민족적 해방 운동’을 ‘사회주의 혁명’의 한 단계로 파악하고 한 걸음 나아가 해방된 조선에 소비에트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⁴⁾

고려공산당 선언의 명백한 마르크시스트—레니니스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 당의 중앙위원(변역부 위원)으로 선출된 여운형이 마르크시즘—레니니즘을 어떤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여전히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소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려공산당에 가입

2) 金俊輝·金昌順, 『한국공산주의운동사』(5권 : 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제1권, p.192.

3) 위의 책, p.193. 이 책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작성한 「여운형 조서」(1930), pp.322—23에서 인용하고 있다.

4) 위의 책, pp.193—94.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점은 그가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인민대회에 참석하고 레닌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면서 국제공산주의의 이념적 목표보다 조선의 민족적 해방을 앞세운 사실에서 두드러진다. 레닌과의 면담에 대해 여운형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나는 직접 幕府(모스크바: 필자 주)에서 레닌과 만났소만,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러시아는 조선에다 공산주의를 그대로 선전하려 들지 않나 저속 걱정되었으나, 만나본즉 그는 조선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소. 조선의 교통과 국어를 묻기에, 교통은 1일에 全通될 정도, 국어는 한 개 국어라 하니가 레닌은 “매우 좋다. 조선은 전에는 문화가 발달했지만 目下는 문화가 낮으므로 곧 공산주의를 실행하려 들어선 잘못이다. 지금은 민족주의부터 실행시킴이 현명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내 소신에 합치되매 나는 매우 만족하였다.⁵⁾

이 인용문에 나타나 있듯이, 여운형은 조선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공산주의에서가 아니라 민족주의에서 찾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여운형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여운형은 분명히 공산주의에 호의를 갖고 있었고, 적어도 사회주의는 수용하고 있었다. 여운형이 공산주의에 접근하는 과정을 그의 아우 여운홍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유와 평등에 진보적인 민주적 사상을 갖는 형님이었던지라 처음에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예수교 신자가 되어 신학 공부를 한 일도 있다. 그러나 1919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에 제정이 무너지고 계급 차별이 철폐되는 것을 보게 되자 형님은 사회주의(그 당시 형님이 공산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사실이다)가 한층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형님은 사회사상 관계의 서적을 읽음으로써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더구나 파리 강화회의가 제국주의자들의 야욕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사회주의에 대한 형님의 신념은 확고해졌다.⁶⁾

5) 김광식 “제3세계 민족주의자로서의 여운형: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중심으로”, 『제3세계연구』, 제2호(1985년 6월), pp. 309-10에서 다시 옮김. 필자는 「여운형 초서」, p. 282에서 인용하고 있다.

6) 여운홍, 앞의 책, pp. 81-82.

이 인용문과 관련하여, 김광식은 여운형의 정치사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렇게 결론지었다. 즉, 여운형이 갖고 있었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신념과 제국주의에 대한 실망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주관적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모스크바 당국의 여운형에 대한 평가—정수의 공산주의자로서가 아니라 동양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진보적이며 현명한 민족운동자—가 객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⁷⁾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제기되는 물음은 그가 민족주의자인가 사회주의자인가 라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해 김광식은 “여운형은 민족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였다”고 전제한 다음, 그를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김광식은 “그것이 당시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는 반제·반봉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풀이했다.⁸⁾

해방과 더불어 여운형의 반제·반봉건적 입장은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적극적 형태로 구체화되었다.⁹⁾ 즉 그는 建準과 人共의 창설을 통해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는 ‘이데올로기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었다.¹⁰⁾ 건국을 위해서는 이념적 차이를 넘어 협력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우익 정당들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노동자와 농민 및 일반 대중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여운형의 입장은 그로 하여금 계급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을 지향하게 하였다. 예컨대, 그는 조선인민당을 조직하면서, ‘반동분자’만을 제외하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소시민 양심적 자본가와 지주까지 포함

7) 김광식, 앞의 논문, p. 316. 모스크바 당국의 여운형 평가 부분은 김준엽·김창순의 앞의 책, p. 396에 의존하고 있다.

8) 김광식, 앞의 논문, p. 319.

9) 위의 논문, p. 322.

10) 위의 논문, p. 324.

시킨 모든 인민을 대표하는 ‘대중 정당’을 표방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운형은 “민족 해방의 단계에서 일부의 자산가(즉, 자본가)와 무산 계급이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白南雲의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에 가까운 주장과 행동방식을 보여 주었다는 김광식의 분석은¹¹⁾ 타당하다고 하겠다.

여운형은 자신의 정치적 신조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한민당과 임시정부가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결국은 자본가의 독재로 귀결되는 부르조아 민주주의인 데 반하여, 노동자와 농민 등 근로대중의 이익이 보전되고 소시민, 자본가와 지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인민전선적 민주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¹²⁾ 이 점에서 조선인민당과 조선공산당의 차이가 있다. 공산당이 지주·자본가층의 배제를 주장한 데 반해 인민당은 자본가와 지주까지도 그들이 진보적이고 양심적이라면 제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¹³⁾

종합하여 김광식은 여운형과 공산주의 사상과의 관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여운형은 공산주의적 논리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변혁을 지향하고 그 변혁이 노동자, 농민, 그리고 소시민 등 근로대중의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경우, 공산주의 이론은 그에게 많은 시사할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여운형은 노동자 계급의 독재는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폭력이나 계급적 증오에 대해 아무런 흥미 내지 편애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운형에게 있어서 민족통일국가를 이루는 길은 어느 한쪽 이데올로기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공산주의의 이론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면서 우익 인사들이 융합될 수 있도록 이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도 포함시킨 이데올로기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¹⁴⁾

다시 김광식의 평가를 빌리면, “여운형은 여전히 진보적 민주주의와 부르즈와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고 중간파를 자처하면서 사회주의적 정치사상의 테두리에서 있었다.”¹⁵⁾ 즉 사회주의자이면서 공산주의자는 아닌

11) 위의 논문, p. 337.

12) 위의 논문, p. 338.

것이 여운형이었다.

2.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해방된 남한 좌파 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도자는 박헌영이었다. 여기서 박헌영이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조선공산당을 조직해 공산혁명을 지향하던 과정을 살펴기로 한다.

여운형이 이동휘가 상해에서 조직한 고려공산당에서 공산주의와 인연을 맺었음에 비해, 박헌영은 이동휘의 고려공산당과 대립해 있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서 공산주의와 인연을 맺었다. 그러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란 무엇인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기원은 1919년 1월 22일 이르쿠츠크의 한인들이 세운 이르쿠츠크공산당 한인지부이다. 이 조직의 간부들은 南萬聰(또는 南萬春) 金哲勲 吳夏默 朴承萬(또는 朴承晩) 尹協 趙勲 등등으로,¹³⁾ “이들은 거의 모두가 러시아 歸化人이며 러시아의 문물에 익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세비키 의지를 어느 정도 체득하고 있었던 자들이다.”¹⁷⁾ 그러므로 “이 집단의 역할은 불세비키 혁명 전선에 한인을 직접 동원하는 일이 제 1차 사명으로 되어 있었다.”¹⁸⁾ 바꿔 말해, 조선의 독립을 위한 민족 해방 투쟁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이처럼 이 집단은 처음부터 불세비키를 위해 충성을 바쳤고 그 대가로 정치적 신임을 얻어 그 바탕 위에서 1919년 9월 5일 「全露 한인공산당」을 조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전로 한인공산당」이 1921년 5월 초 「전로 고려공산당」으로 개편한 것인데,

13) 沈之淵, 『민족주의 논쟁과 통일정책 : 해방 직후 정치적 대립과 갈등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 한울, 1985), p. 34.

14) 김광식, 앞의 논문, p. 339. 이 글 안에 인용된 부분은 미군정의 교문이었던 평단이 여운홍의 앞의 책에 쓴 서문, p. 11에 있다.

15) 위의 논문, p. 343

16)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I (*The Movement*), p. 9.

17) 김준엽·김창술, 앞의 책, p. 233.

18) 위의 글음.

이것이 세칭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다.¹⁹⁾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는 코민테른의 호의를 얻기 위해 경쟁적인 갈등을 벌였다. 이것을 보고 코민테른은 1922년 11월 초 두 파의 공산당 조직을 해산시켰고, 이어 레닌은 1922년 12월 중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해외가 아니라 본국 안에 단일 공산당을 세워야 하며 그렇게 하기 전에는 「조선 공산당」이라는 명칭은 사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²⁰⁾ 이에 따라 두 파벌은 각각 국내에 밀사를 파견해 자신의 지부를 세우고자 했다. 이 무렵 서울에는 일본 유학을 통해 마르크시즘을 받아 들인 다음 조선 무산대중의 해방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 아래 귀국한 청년들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1925년 초 서울에는 이르쿠츠크파의 화요회와 상해파의 서울 「콩그물」 및 일본유학생파의 북풍회가 각각 세워졌다. 그리고 이 세 파가 1925년 4월 18일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창당했다.²¹⁾

박헌영은 1920년 9월 상해에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해 지부에 가입했다. 이 조직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성장한 그는 조선공산당 창당에도 관여했고, 조선공산당 창당 다음 날인 1925년 4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고려공산청년회를 발족시켜 책임비서가 되었다. 고려공산청년회는 현재의 자본주의 제도 즉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취지의 강령을 채택하여 처음부터 마르크시스트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하게 했다.²²⁾

조선공산당은 곧 일경에 발각되어 지도자들이 거의 전부 체포되었다. 박헌영도 1925년 11월 30일 검거되어 재판을 받다가 병 보석을 받고 1927년 11월 22일 출감했으며, 1928년 11월 해외로 탈출하여 1929년 6월부

19) 위의 책, pp.238-42.

20)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The Origins of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Journal of Asian Studies*, XX, 1 (1960), p.156.

21)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p.55-68.

22) 朴甲東, 『박헌영: 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서울: 인간사, 1983), p.56.

터 두 해 동안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수학했다. 그 사이 (1928년 12월 7일) 코민테른은 「조선문제 12월테제」를 발표하여 국내의 조선인 공산당을 해소시켰다. 이에 따라 박헌영은 당 재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1939년 金三龍 등과 경성 「콩·그물」을 지도하게 되었고, 1942년 이 조직이 파탄하자 광주로 피신하여 金成三이란 가명으로 기와 공장 인부로 지냈다.²³⁾

해방과 더불어 그는 서울로 올라와 9월 3일 조선공산당을 재건했으며 당 책임비서에 취임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제목의 이론바 8월 테제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2단계 혁명론을 전개했다. 즉 조선의 현 단계를 「부르즈와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고 파악하고, 이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넘어 가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2단계 혁명론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세력이 아시아에 대해 적용한 정통 이론이었으며, 따라서 8월 테제는 이 이론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다.²⁴⁾ 金南植이 “8월 테제의 내용은 공산주의 이론과 전략 전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판에 박은 도식적 규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이어 “박헌영이 조선의 현 단계를 부르즈와 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본 것은 그가 다분히 공산주의 혁명 이론을 기계적으로 도입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분석한 것은²⁵⁾ 이러한 맥락에서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박헌영의 분석은 마르크시즘—레니니즘의 이론에 비춰 볼 때 어떻게 평가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김남식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박헌영외〕 주장이 실명 옳다고 치더라도 그가 들고 나온 토지와 산업시설 대부분에 대한 국유화 문제는 본래의 부르즈와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거론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사회주의 단계에서만 다뤄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보다는 일제 식민지 잔재와 봉건적 잔재의 청산을 가장 우선하는 과업으로 택했어야 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 단계’를 순수한 부르즈와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고

23) 앞의 책, pp. 75—80.

24) Scalapino and Lee, 앞의 책, p. 24.

25) 金南植, 『남로당연구』(서울: 돌베개, 1984), p. 24.

하기보다는 반제·반봉건 혁명 단계라고 했다면 오히려 우리 나라 사회 실정을 더 적합하게 표현한 개념이 될 것이다. 혁명의 성격 규정이 이처럼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결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략 전술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우경적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²⁶⁾

다시 김남식에 따르면, 당 조직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 조직 원칙이 제시되지 않았다. 풀어 말해, “당원의 자격, 권리, 의무와 당 규율 문제를 비롯하여 중앙 및 하부 조직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혀 규정을 얹고 있다.” 즉, “레닌의 당 조직 원칙에 따르면 합법적 활동 시기에는 당은 반드시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에 의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헌영은 지하당 시절의 자기류의 조직 개념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8월 테제는 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다뤘다. 혁명에 있어 정권의 장악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공산주의 혁명 이론의 기본인데, 8월 테제는 “정권 형태에 대해서 ‘인민 정권’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인민위원회’라고는 못박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당의 행동 방침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최고 목표와 당면 목표를 밝혀야 되는데, 최고 목표인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하여, 김남식은 “8월 테제는 얼핏 보기에는 짜임새 있는 것 같으나 이처럼 공산주의 이론에 비취 보아도 미흡한 점이 매우 많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그리고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서 본다면 더욱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36년 동안에 걸친 일제 폭정과 식민지 통치로부터 겨우 벗어난 우리 민족에게는 민주주의적인 자주 독립 국가를 성취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이었음에도, 8월 테제는 민족 분열과 계급 대립을 극대화시켜 그들간의 극렬한 투쟁만을 제시하는 큰 과오를 저질렀던 것이다.²⁷⁾

이러한 이론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박헌영이 마르크스изм—레니니즘으로부터 이탈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26) 위의 책, pp. 24—25.

27) 위의 책, p. 25.

1946년 9월 5일 서울을 탈출하여 월북할 때까지 가장 과격한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장본인이다. 그가 이끈 조선공산당의 지도 아래 1946년 9월 이른바 9월 총파업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 철도 노조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곧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영남의 주요 지역들로 번지면서 전국에 걸쳐 철도와 통신 및 생산 기관 전체를 마비시킨 이른바 영남 폭동으로 이어져 갔다.²⁸⁾ 이러한 대규모 폭동은 분명히 레닌리스트적 또는 공산주의적 투쟁 노선의 산물이었다.

박헌영은 이 일련의 폭동에 앞서 월북했으나 그가 여전히 이끄는 조선공산당은 1946년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전지동 侍天교회당에서 남조선新民당과 조선인민당과 함께 남조선노동당을 새로 만들어냈다. 이 때 조선공산당은 10월 폭동이 “인민 항쟁으로서 ① 조선 인민의 투쟁역량을 역사적으로 증명했으며, ② 인민은 당의 지도 아래 어떤 투쟁도 할 수 있으며, ③ 당은 인민의 전위로서 항상 선두에서 싸워 왔으며, ④ 이 폭동은 인민의 전위인 남로당을 탄생시켰다”는 이론을 제시했다.²⁹⁾ 이러한 이론은 조선공산당의 反인민적 유혈 폭동을 합리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남한 주민의 대다수는 조선공산당이 저지른 갖가지 파업과 암살 및 폭동에 지쳐 있었으며, 이 때문에 “당은 일반과 멀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립을 면치 못했다.” 확실히 조선공산당이 추구했던 폭력적 혁명 노선은 그 당시의 남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박헌영은 월북한 뒤에도 서울의 당에 글을 써 보내 지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당내에서는 「박헌영 선생의 서한」이라고 불렀는데, 이 서한에는 원칙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헌영은 실제로 원칙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시하였다.³⁰⁾

1948년 9월 9일에 성립된 북한 정권에서 박헌영은 부수상 겸 외상의

28) 박갑동, 앞의 책, p.149.

29) 위의 책, p.157.

30) 위의 책, p.175.

지위를 차지했다. 그는 대남 문제에 있어서 김일성과는 달리 평화통일 노선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점에 관한 박갑동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박헌영이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가지고 있는 것 단 하나. 그것은 군사와 경찰의 힘이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 요소 때문에 남로당과 북로당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달랐었던 것이다. 평화통일 노선을 취하면 박헌영이 유리하고, 무력통일 노선을 취하여 성공하면 우리 나라 전체는 김일성의 손아귀에 쥐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949년 가을 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통용되어 가서 직접 박헌영의 지시에 의하여 1950년 2~3월에 鄭泰植을 보좌하며 통일에 관한 정책을 입안할 때, 남로당은 평화통일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며 그것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남로당의 약점은 자기의 무력을 가지지 못한 데 있었다. 자기의 무력을 가지지 못한 정당이 어찌 무력통일을 주장할 수가 있을까?³¹⁾

다시 박갑동에 의하면, 1950년 2월 말 박헌영은 평양에서 서울의 지하 남로당 조직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 3월 25일까지 「남로당 지하당의 남북통일에 관한 정책」을 입안해 보내라는 지시였다. 이 지시에 응해 남로당의 이론진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갑동의 기억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보고서는 우선 “남로당의 평화통일 노선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북한쪽에 의한 38도선의 외부로부터의 무력 통일은 절대 금물이다. 이것은 극좌 모험주의로서 외국군의 간섭을 가져 올 위험이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남북 간의 지역적·지방주의적 파쟁의 양상을 열 우려가 있으며 조국의 장래의 운명에 큰 해독의 근원을 만드는 것으로 된다”고 지적했다.³²⁾ 그러나 3월 7일 남로당 간부인 金三龍과 李舟河가 체포되고 남로당의 서울 지도부가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이 보고서는 평양으로 전달되지 못했다.³³⁾

31) 위의 책, p. 210.

32) 위의 책, p. 245.

33) 위의 책, p. 257.

박갑동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그러나 그는 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1950년 4월 초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정치위원회가 열렸다. 이 모임에서의 토론 내용을 박갑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³⁴⁾

이 정치위원회에는 김일성(위원장), 박헌영(부위원장), 許哥而(부위원장), 이승엽(정치위원), 김두봉(정치위원) 등등 각 정치위원과 최용건(민족보위상·북조선민주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우선 김일성이 「조국의 통일 문제에 관한 건」에 관해 보고했다. 그는 ‘현 단계에 있어서의 정세’를 보고하고, “현 단계에 있어서는 무력 통일이 단 하나의 옳은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정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³⁵⁾ 김일성의 보고에 대해 각 정치위원은 석차에 따라 토론했다.

박헌영이 최초로 일어섰다. 그는 혁명의 기본 방식으로서는 勞·農·兵 동맹으로 밑으로부터 통기하는 러시아 10월 혁명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을 갑자기 모택동 노선을 본뜬 무력 내전 방식을 취하려는 김일성의 제안에 마음으로 찬의를 표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원칙적인 노선상의 대립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남조선 인민의 이익에서도 남한 출신자가 거의 없는 군대로, 설사 남한을 정복한다고 해도 그의 발언권이 없어지리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이었다.³⁶⁾

이러한 입장의 박헌영이었으나, 자신의 입장을 솔직이 나타낼 수 없었다. 김일성의 노선을 정면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숙청의 위험성을 각오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김일성의 입장을 지지한 다음, “남조선에는 현재 약 20만의 남로당원이 지하에 있어 만일 인민군이 남하한다면 20만의 남로당원들이 내용해서 군사작전을 원호할 것으로 믿습니다”고 끝을 맺었다.³⁷⁾ 박갑동의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는 없

34) 위의 책, pp. 257~260.

35) 위의 책, p. 257.

36) 위의 책, p. 258.

37) 위의 책, p. 259.

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개전에 관한 박헌영의 입장을 권위 있게 설명할 수 없다.

3. 김두봉과 연안파

여운형과 박헌영이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면서 필자는 소련과 상해 및 국내에서 조선인에 의한 공산주의 운동이 전개된 양상들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들 밖에 또 하나의 조선인 공산주의 조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金料奉과 武亭을 우두머리로 하는 연안파 조직이다.

연안파 조직의 기원은 華北朝鮮青年聯合會이다.³⁸⁾ 그러면 이 단체는 어떻게 결성되었나? 원래 연안의 중국공산당에는 武亭 陳光華(본명 金昌華) 李維民 柳新 鄭律彬 등등 20명 안팎의 한인들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절충한 지도자는 무정이었다. 그는 일찌기 중국으로 건너 가 군관학교 포병과를 졸업하고 중국군 포병장교로 있으면서 1925년에 20세의 나이로 중공당에 입당했다. 그는 중공당의 장정에도 참가했으며 이 때 이미 작전과장의 중책을 맡고 있었고 그 뒤 팔로군이 포병부대를 창설하자 그 책임자로 뽑힐 정도로 중공당 간부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³⁹⁾ 그는 곧 연안의 항일정치군사대학(抗大) 졸업생들을 주축 삼아 팔로군 안에 조선인 부대를 창설한다. 이 무렵 중경에 있는 金元鳳의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조선청년전위동맹을 이끌었던 李建宇(본명 崔昌益)가 연안으로 와서 무정과 합작해 1941년 1월 10일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발족시킨 것이다. 연합회의 주식에는 무정이 취임했다. 이어 1941년 6월에는 연합회의 무장부대로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발족시켰다.

이 연합회는 연안 동쪽의 팔로군 전방 총사령부 소재지인 山西省 東南 太行山 중에서 중공당의 지원으로 발족했다. 연합회의 강령 및 선언은

38) 李命英, 『권력의 역사: 조선로동당과 근대사』(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3), pp.170~77.

39) 「조선의용군 총사령 무정장군 일대기」, 『신천지』(1946년 3월호), pp.238~41 및 p.226. 위의 책, p.171에서 다시 옮김.

이 단체의 기본 성격이 공산주의적이라기보다도 민족주의적임을 말해 준다. 풀어 말해, 계급혁명 또는 공산사회 건설이라는 용어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 화북의 모든 조선 청년들이 단결해 중국의 항일 전쟁에 적극 참가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⁴⁰⁾ 이것은 연안과 공산주의자들도 그 출발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이념보다 민족해방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연합회는 자신의 출범과 더불어 중경에 있는 조선의용대의 포섭 공작에 나섰다. 즉 김원봉의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대원들을 복상시켜 연합회에 가담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 공작을 당시 국공합작의 사명을 갖고 중경에 와 있던 주은래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주은래는 연안의 중공당 학교 졸업생으로 김원봉의 개인비서직을 맡고 있던 중국인 쓰마루를 조종하여 김원봉을 속이게 하고 이에 따라 조선의용대의 상당 수를 연안으로 가게 만들었다. 김원봉의 연안행은 주은래에 의해 거부되어 그는 부하를 잃은 의로운 지도자가 되고 말았다.⁴¹⁾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화북조선청년연합회의 항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중경쪽의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에서 많은 간부들이 화북으로 왔다. 특히 1942년 4월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의 원로 간부였던 김두봉마저 중경으로부터 연안으로 가서 연합회에 합류했다. 그러자 연합회는 그해 7월 10일 제 2차 대회를 열고,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화북조선독립동맹(통칭 조선독립동맹)으로, 그리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통칭 조선의용군)로 개편개칭했다. 김두봉이 조선독립동맹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석으로, 무정이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총사령으로 각각 선출

40) 金正明, 『조선독립운동』(동경: 原書房), 제 5권(1967), pp. 994~97. 일본 내무성 警保局, 『特高월보』, 1941년 4월호, pp. 97~99. 이명영, 앞의 책, p. 171에서 다시 옮김.

41) Ssuma Lu, *Toucheng shihpanien* (Eighteen Years of Struggle) (Hong Kong, 1952), pp. 173~80. Scalapino and Lee, 앞의 책, pp. 174~78에서 다시 옮김.

왔다.⁴²⁾

화북조선독립동맹은 강령을 발표했다. 이 강령에 대해 이명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그 내용은 전년의 화북조선청년연합회의 강령 및 선언의 기본 취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었으나 이번의 동맹 강령에는 해방될 조국에 조선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기약하는 대강이 들어 있었다. 이 강령은 1941년 11월에 중경의 임시정부가 채택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처럼 자상하고도 체계적인 것은 못되었지만 기본 원칙만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내세우고 있었으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반제민족통일전선 건설 단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참 목적(공산혁명, 공산당독재)을 내세우지 않는 전술에 따른 강령이었던 것이다.⁴³⁾

1944년 2월 말 현재로 일제의 정보기관에서는 독립동맹 및 의용군의 총 세력을 그들의 가족까지를 합쳐 3백명 안팎으로 보았다. 일제의 항복을 계기로 그들이 귀국할 때의 간부 진용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독립동맹	주 석	김두봉
	부 주 석	최창익 한 빈
	집행위원	무 정 허정숙 李維民 朴孝三 朴一禹 金昌滿 楊民山 朱春吉 方禹鏞 金漢中 河仰天 李春岩 張振老 金 浩
조선의용군	총 사 령	무 정
	부 사 령	박효삼 박일우 ⁴⁴⁾

조선독립동맹 및 조선의용군 계통의 인사들이 평양에 도착한 구체적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1945년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개별적으로 도착했다.

조선독립동맹의 간부들은 우선 조선 독립동맹의 간부를 그대로 내세우

42) 주 39)의 『신천지』 기사는 연합회 제 2차 대회일을 7월 10일로 기록했으나, 일본 경찰의 자료는 8월 15일로 기록했다. Scalapino and Lee, 앞의 책은 8월로, 이명영, 앞의 책은 7월 10일로 기록했다.

43) 이명영, 앞의 책, p.173.

44) 위의 책, p.177.

고 정치 활동에 들어 갔다. 이들의 정강 정책은 「상대적으로 온건」⁴⁵⁾했다. 『산업노동시보』 제 1 권(1946년 1월)에 게재된 「조선독립동맹의 정강」에 따르면, 이들은 중산 계급의 처우 문제와 토지 개혁 문제 및 종교 문제 등등에 대해 공산당보다 부드러운 입장을 취했다.⁴⁶⁾ 사유 재산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기 위해 일본인들과 「민족 반역자」에 속하는 이들의 재산만을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뿐 아니라, 강령 전체의 강조점은 「완전한 독립과 사회 정의 및 완전한 정치적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지는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모든 계급들의 단합과 협력」에 주어지고 있다.⁴⁷⁾ 종합적으로 말해, 그들의 제안들이 공산당의 그것들로부터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보다 온건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마르크시스트적 용어보다는 민족주의적 용어로 쓰여져 있었다.⁴⁸⁾

북한에 있어서 공산당과 조선독립동맹—그리고 그 후신인 조선신민당—의 이러한 차이는 남한에 있어서 공산당과 남조선신민당과의 차이와 비슷했다. 남조선신민당 당수로서 마르크시스트 경제학자인 白南雲은 남조선신민당 창당 직후인 1946년 초 『조선 민족의 진로』라는 소책자를 발행하고, 조선에 있어서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은 어떤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 및 민주적 경제 등등과 같은 기본적 목표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진정한 브르즈와-프롤레타리아 연합을 형성하면서 동등한 입장에 서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⁴⁹⁾ 이러한 주장을 조선공산당은 「비과학적이며 반혁명적」이라고 비난한 것이다.⁵⁰⁾

되풀이하진대, 모택동이 여러 혁명 계급들의 통일 전선을 형성하기 위

45) 이 표현은 Scalapino and Lee, 앞의 책, p. 354에 있다.

46) 위의 책, p. 354에서 다시 옮김.

47) 위와 같음.

48) 위와 같음.

49) 위와 같음.

50) 위와 같음. 원전은 『신천지』(1946년 6월)에 실려 있는 이기수의 논문이다.

해 제시했던 신민주주의 이론에 영향 받은 조선독립동맹의 강령은 김일성을 중심한 소련-갑산파의 마르크시스트적 강령보다 비교적 온건했다. 따라서 직장 근로자들과 뱀띠브르즈와 및 지식인들의 상당 수가 좌파 정당들 가운데에서 당적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선독립동맹—그리고 그 후신인 조선신민당—으로 기울어졌다. 일제 총독부에서 하급 관리를 지냈거나 일본 군대에서 종사했던 이들도 보신책의 하나로 연안파의 이 조직에 가입했다.⁵¹⁾ 전반적으로 보아, 연안파는 북한의 비교적 중·상부층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연안파의 그러한 「성공」의 또 하나의 이유는 김일성파의 「관용」이었다. 소련-갑산파는 이 시기에 박헌영과 박헌영의 국내파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연안파와의 직접적 대결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연안파는 그 조직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⁵²⁾

조선독립동맹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게 되자, 그 간부들은 1946년 3월 30일 조선독립동맹을 朝鮮新民黨으로 개편했다.⁵³⁾ 김두봉이 위원장으로, 최창익과 한민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당의 이름을 신민당으로 정한 사실 자체가 연안파의 정치이념적 정향이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에 크게 영향 받았음을 말한다. 그러나 연안파가 중국으로부터 귀국하여 신민당을 창당할 때까지 중공당의 지원이나 영향은 거의 없었다.

신민당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판을 받게 되자 소련-갑산파는 연안파의 이념적 자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연안파가 표방하는 신

51) 김창순, 『북한 15년사』(서울: 지문자, 1961), p. 98.

52) Scalapino and Lee, 앞의 책, p. 353.

53) 위의 책, p. 98.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 보안간부학교」가 1949년 1월 20일자로 펴낸 『해방 후 조선』 제2분책, p. 90은 신민당의 결성일을 1946년 1월 16일이라고 적고 있다. Scalapino and Lee는 김창순의 책을 인용하면서 2월 16일이라고 적고 있다. (p. 352).

민주주의 때문에 연안파들을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밀기 어려우며」,⁵⁴⁾ 그들은 통일전선의 이름 아래 브로즈와지와 친일 관료들을 지지하는 「가짜」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것이다.⁵⁵⁾ 김두봉과 무정에 대한 소련-갑산파의 시기와 의심은 韓載德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김일성에 대한 책을 출판한 데 이어, 그가 김두봉을 회견하고 나서 김일성과 김두봉 및 최용전 세 사람들을 묶어 책자를 내자, 김일성을 세 사람들 가운데 맨 앞에 내세웠고 김일성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찬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분부로 호출되어 김용범으로부터 엄중한 질책을 받았다. 김두봉과 최용전을 김일성과 같은 수준에 놓고 설명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만일 이 책자에 자신이 무정을 포함시켰다면 김일성과가 무정을 더 강력한 경쟁자로 간주했음에 비추어 자신은 더욱 엄중하게 비판되었을 것이라고 한재덕은 썼다.⁵⁶⁾

소련-갑산파와 연안파의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두 파의 정당은 곧 통합되었다. 즉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이 통합하여 북조선로동당을 만든 것이다.

4. 김일성과 소련-갑산파

김일성에 대한 과장되고 또는 조작된 경력 설명은 많은 변화들을 겪어왔다.⁵⁷⁾ 김일성의 전기물들 가운데 초기의 것에 속하는 것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과가 마련한 『김일성 장군의 약전』(명양, 1952; 동경학우서방 재쇄, 1954)이다. 해방 직후의 시기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대부분의 글들은 한재덕에 의해 쓰여졌다. 그러나 김일성의 최초의 전기 작가는 韓雪野인 것으로 알려졌고, 한설야의 작품들 가운데 하나는 1962년 김

54) 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 115.

55) 방인후, 『북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pp. 101~103.

56) 한재덕, 『김일성을 고발한다』(서울: 내외문화사, 1965), pp. 225~227.

57) 이하의 정보는 위의 책, p. 203의 각주, p. 105에 있다.

일성의 50회 생일에 동경에서 *Hero General Kim Il Sung*으로 영역·출판됐다. 그러나 한철야는 곧 숙청됐으며, 이것은 김일성과 그 정권에 대해 하나의 당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김일성의 새 전기물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가 1968년 白峰의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이 책을 세 권짜리 영역본으로 동경 미래사를 통해 1969년부터 1970년 사이에 출판했고, 미국의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구미의 유력지들에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 책들에 실린 과장되고 조작된 내용들은 그 뒤 많은 학자들의 성실하고 과학적인 자료 분석에 의해 반박되거나 부정됐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보다 더 가까운 진실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⁵⁸⁾ 김일성은 만 14세인 1926년 만주의 중국공산당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오늘날 김일성에 관한 북한의 공식 전기물들은 김일성이 중공당에 입당했었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 까닭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을 외국의 공산당에 의해 일차적으로 교육된 지도자로 설명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뛰어 넘는 천재적인 공산주의 이론가로서 조선 전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독창적인 전법을 개발한 지도자로 묘사하고 싶은 북한 당국에게 김일성의 중공당 입당 경력은 무척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백봉이 쓴 김일성 전기 제1권은 만주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이처럼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중공당에 대해서는 한 줄도 말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김일성의 상관에 대해서 또는 김일성의 상부 명령체계에 대해서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음은 물론이다.⁵⁹⁾

중국공산주의 운동과의 연계 속에 공산주의자로서의 경력을 출발한 김일성은 1932년 봄계부터 게릴라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것 같다.⁶⁰⁾ 여기서

58) 그 대표적인 보기가 Scalapino and Lee, 앞의 책, p. 208.

59) 이 점에 대한 분석은 위의 책, p. 208에서도 보인다.

60) 위의 책, p. 209.

주목해야 할 것은 김일성의 경력은 모든 시절에 있어서 군사 작전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과 더불어 처음부터 「결정적으로 정치적」이라는 사실이다.⁶¹⁾

만주의 중국인 및 조선인 항일 단체들에 대한 일제의 소탕 작전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1940년 8월 김일성과 그의 추종자들은 소련으로 돌아났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꿔 말해, 1940년 여름 이후의 김일성의 활동에 대해서는 북한과 소련의 공식 간행물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다. 그 이유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소련으로서는 자신이 아시아의 공산주의 운동에, 특히 일본과의 불가침·중립조약이 발효 중인 시기에—일·소 조약은 1941년 4월에 체결됐다—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으로서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의 자신의 권력 장악이 일차적으로 소련의 지도와 지지의 산물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⁶²⁾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김일성도 귀국했다. 대중 집회에서의 그의 첫 번째 등장은 1945년 10월 14일 평양의 군중 대회에서였으며,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구에 대한 그의 장악은 1945년 12월 말에 열린 「북조선공산당 제3차 확대위원회」⁶³⁾에서였다. 이 회의에 대해 『해방 후 조선』 제2분책은 다음과 같이 썼다:

제3차 확대위원회가 있는 후 당은 역사적으로 처음되는 당내 일대 혁신을 진행하였다. 제일 먼저 당 중앙과 각급 당부에 우수한 간부들을 등용하며 협소한 지방 관념과 친척 관념을 가진 분자들과 오랫동안 케케묵은 종파사상을 가진 분자들과의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지방할거주의적 경향과 구루파적 경향을 가진 분자들과의 엄격한 투쟁을 전개하여 당의 중앙으로부터 세 포까지 엄연한 조직 체계를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개인영웅주의적 사상과 자유주의적 경향들과의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당내 조직상 통일과 사상일치성을 보장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⁶⁴⁾

61) 위의 책, p. 210.

62) 위의 책, p. 226.

63) 이 용어는 주 53에 나오는 『해방 후 조선』 제2분책, p. 88에 보인다.

이러한 「일대 혁신」에도 불구하고 북조선공산당에는 「무식한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러한 현상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신민당이 지식인을 포용한 사실과 대조되었다. 이 점은 양당 통합에 관한 『해방 후 조선』 제 2분책에서 다음과 같이 암시되고 있다.

신민당 내 부분적 당원들은 합당에 있어서 주로 우경을 범한 자들이 많았다. 즉 “양당이 합동하는 것은 공산당이 과거에 있어서 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또한 신민당 정책이 옳았기 때문에 합동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산당에는 무식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신민당에는 유식한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배우려고 합당한 것이다” 등등 우경적 분자들이 근거도 없는 구실로써 합당을 반대하는 종파주의적 경향을 가진 분자들이 있었던 것이다.⁶⁴⁾

양당을 통합해 북조선로동당을 만들어낸 1946년 8월 29일~31일의 회에서 김일성과 김두봉은 각각 연설을 했다. 1946년 평양의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가 출판한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에 실려 있는 이 연설들을 비교한 한 학자는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일성의 연설은 거의 전적으로 조선과 조선의 요구에 대해 바쳐지고 있다. 그는 북조선로동당의 형성을 조선의 독립운동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조선의 민주발전의 필요성 및 새 나라 새 생활 건설의 필요성에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 전체 조선의 「완전 독립」과 「진정한 민주화」가 북조선로동당의 프로그램임을 강조하면서 북조선로동당은 「남조선의 애국자들」과 협력해 「통일되고 완전히 독립된 나라」를 세우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의 이 연설 속에는 마르크시즘—레니니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반면에 조선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및 항일 운동 등등에 관한 언급이 무척 많다.⁶⁵⁾ 이에 비해, 김두봉은 국제 정세에 대해 꽤 많이

64) 위와 같음.

65) 위의 책, pp. 93~94.

66)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 419~420.

설명하고 있다. 그는 소련 군대에 의해 파시즘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세워 나가고 있는 나라들의 그룹인 「새로운 소비에트 진영」에 대해 많이 언급했으며, 불가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및 루마니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적 개혁들」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했다. 그는 1917년의 10월 혁명 이후 세계에는 사회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의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두 세력들이 존재해 왔으며 이 두 세력들 사이의 투쟁이 2차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설명한 다음에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조선 스스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봉의 연설은 확실히 김일성의 연설보다 마르크시스트—레니니스트 이론에 친숙해 있었다.⁶⁷⁾

이러한 대조에서 보여지듯이, 김일성은 마르크시즘—레니니즘적 사고와 논리보다 「조선 혁명」 그 자체에 관심이 더 컸던 것 같다. 만일 이 분석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김일성이 1955년 12월 제시한 이른바 주체 사상의 출발점을 아무리 늦게 잡는다고 해도 해방 3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자신의 일인 지배 체제를 굳히고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영 교수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김일성의 소위 주체 사상의 진수는 제국 해방도 민족 해방도 인간 해방도 아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유일 사상=절대적 진리=인민의 절대적 신앙=인민의 절대적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수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주체성도 인민의 주체성도 이미 없는 것이다.⁶⁸⁾

종합적으로 말해, 김일성의 이른바 주체 사상은 마르크시즘—레니니즘과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것은 때로는 마르크시즘—레니니즘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기도 하다.

67) 위의 책, p. 420.

68) 이명영, 앞의 책, p. 265.

Ⅲ.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해방 3년의 시기에 있어서의 남한과 북한의 대표적인 좌파지도자 네 사람이 마르크시즘—레니니즘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그리고 마르크시즘—레니니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살펴 보았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남북한의 좌파 또는 마르크시스트 지도자들이 마르크시즘—레니니즘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서로 달랐다. 어떤 이는 중국공산당을 통해, 어떤 이는 소련공산당을 통해, 어떤 이는 일본공산당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이는 그 복합을 통해 마르크시즘—레니니즘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이 좌파 운동을 전개한 지역의 차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그들 사이의 단결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둘째, 그들은 대체로 항일 독립 운동의 방편으로, 즉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및 혁명적 운동을 지원할 배후의 외국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어느 특정한 외국 공산주의 운동 세력과 연계하였다. 간단히 말해 그들의 출발점은 민족주의였다. 그러나 그들이 공산주의를 수용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며, 비록 독립 운동의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해도 차차 공산주의를 내면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해방과 더불어 귀국한 다음에는 공산주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적어도 그것에 가깝게 행동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파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화합 또는 타협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그만큼 좌파 지도자들과 우파 지도자들과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간격은 컸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적 간격이 남북 분단이 굳어지는 한 요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셋째, 그들은 봉건적 잔재와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철폐가 자신들의 공산

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들은 또 사유 재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토지 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기간 산업들과 금융 기관들은 국유화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사회주의적 법령」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여기서 최소한의 「사회주의적 법령」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남녀평등권과 소년소녀의 근로보호 및 8시간 노동제 등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도 어떤 주요한 차이들이 발견된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소련-갑산파는 처음부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정권 장악을 옹호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는 철저한 레닌리스트였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한의 조선공산당도 그러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안파는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이론에 가깝게 브르즈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연합을 옹호하였다.

해방 3년의 혼란기가 지난 다음 남한에서는 강력한 반공적 및 우파적 정권이 세워져 왔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반공적 및 우파적 세력은 일찌기 몰락하고,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연안파도 숙청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갑산파만이 남아 있다. 바꿔 말해, 남북한을 통틀어 볼 때 좌파 세력 또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살아 남아 있는 것은 김일성의 갑산파 뿐이다.

이 사실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풀어 말하자면, 김일성의 갑산파만이, 그리고 더 좁게는 김일성의 족벌만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공산주의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공산주의는 결과적으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비인도적·교조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다. 특히 김일성 한 개인에 대한 「숭배」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숭배」로 확대되고 이 「일가 숭배」⁶⁹⁾를 조장하는 데 마르크시스트적—레닌리스트적 용어들과 개념들이 철저히 활용되면서 김일성의 공산주의는 정통 마르크시즘으로부터 상당히 이탈해 버렸다.

69) Sung-Chul Yang, "The Politics of Cult in North Korea," *Political Studies Review*, Vol. 1 (1985), p. 27.